

판매물량 부족·가격 폭등... 전통시장 '코세페' 소외

코리아세일페스타

이상기후로 농수산물 생산량 급감 산지 공급 차질...“할인 엄두 못내” 극소수 상인 동참...손님 발길 ‘뚝’ 정부 지원·홍보 부족...실효성 없어

“농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판매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코리아세일페스타’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에도 전통시장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암울하긴 합니다.”

유통가가 송년회 등 각종 모임과 행사가 늘어나는 ‘연말 대목’을 맞았으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량 급감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데다가, 같은 이유로 이달 진행 중인 국내 최대 소핑 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에도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움츠러들었기 때문에 연말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졌다.

지난 22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 평일 오전 시간대임을 감안하더라도 시장을 찾은 손님은 구역별로 적으면 1명 많으면 5명가량에 그치는 등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코세페(11월 9~30일)를 맞아 유통업체들이 일제히 대규모 할인 행사에 돌입하면서 ‘대형마트 오픈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대비됐다.

상인들이 올해 코세페에 참여하지 못한

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농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대규모 할인 행사에 참여할 만한 ‘물량’이 부족한 데다가 가격도 폭등했기 때문이다. 코세페는 정부 지원이 없는 자발적 행사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는 해당 기간 소비자들의 방문을 유도해 소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홍보해 잠재고객을 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개별 점포의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어 일부 상인들은 코세페에 동참해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 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올해 행사에는 참여 여부를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실제 전통시장 상인들은 올해 해양관측 사상 최장기간인 71일 동안 고수온 특보가 발효되면서 전국적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탓에 도소매 판매 물량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시장 주력 상품은 대부분 산지 직거래 상품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수산물 생산량 감소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일부 상품의 경우 고수온 영향으로 가격이 2배가량 뛴 데다가 상품 질까지 떨어져 철마다 대량 주문을 하던 손님들도 구입을 망설였고 기존 거래처 판매량까지 감소했다.

상인 김모(46)씨는 “연말에 선물용 상품을 찾는 손님들이 종종 있었는데,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게 부담이 커지면서 관련 상품의 수요도 크게 줄었다”며 “지난



황금빛 갈대밭 초겨울 날씨를 보인 지난 23일 순천만 습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황금빛으로 물든 갈대밭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주말을 만끽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추석에도 예년과 비교해 매출이 30%가량 감소했다. 3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도 ‘IMF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명근양동건어물시장상인회장은 “코세페와 연계해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 전통시장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데, 산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도소매로 판매할 물량

이 부족하니 방도가 없었다”며 “곱창김, 멸치 등 각종 수산물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위판 가격이 폭등해 판매하더라도 남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이 코세페에 동참하더라도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행사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에서는 남광주시장, 대인시장, 양동시장, 양동산업용품시장 등 7곳, 전남지역에서는 순천우시장, 목포동부시장, 나주목사교 시장 등 12곳이 코세페에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행사 분위기를 좀처럼 느끼기 힘들다. <2면에 계속

나다운 기자 dawoon.na@jilbo.com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첫 발 뗐다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첫 발을 뗐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추천서를 정식 제출했다.

전남도는 2026학년도 3월 개교를 위해 국립 의대 설립과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추천서에서 “올해 3월, 정부에서 대통령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을 발표하고, 전남

도, 정부에 ‘통합의대’ 추천서 제출 29일 예비인증 신청 등 절차 진행

도에 대학 선정을 요청하면서 의대 설립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또 “정부 요청에 따라 거점 국립대인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도민과 지역 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최적의 의대 설립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

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논의 끝에 지난 15일 양 대학이 지역상생과 화합을 통해 미래발전의 동력을 만들고,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응하는 대학 간 통합을 통한 ‘통합대학교 국립 의대 추진’이라는 대승적 합의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도는 “대학 통합 합의에 따라 정부 요청에 부응하는 통합대 국립의대를 추천한

다”며 “전남 국립의대가 2026학년도에 개교되도록 정부에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남도의 정부 추천에 따라 목포대와 순천대는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 명의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평원)에 오는 29일까지 예비인증을 신청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교육부에는 대학 통합 신청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2024 함평 바다살리기 실천대회

•일시 11월 27일(수) 오후 2시 •장소 함평군 석성리 돌머리 해수욕장 일대

지구 생물의 80%가 살고 있는 바다는 무한한 자원을 품은 생명의 요람입니다.

하지만 문명의 발달과 함께 급속한 산업화로 해양오염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청정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생태 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살아 숨쉬는 청정 전남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 바다와 접해 있는 차세대와 정부기관은 물론 모든 사람이 바다살리기에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